

김혁중 총장 연임·발전기금 32억원 첫 조성

광주대 '명문 사학' 발판 다졌다

'2030년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을 목표로 제 2차학을 선포한 광주대(총장 김혁중·사진)가 비상의 발판을 마련했다.

입기를 마친 김혁중 총장이 교수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연임을 한데다 교직원과 동문, 지역민의 도움으로 올해 처음 발전기금 32억원을 조성한 것이다.

광주대 교수 250여명을 대표하는 '교수협 의회'는 최근 '총장 연임에 대한 교수들의 조사'를 실시, 92.4%의 찬성으로 김 총장의 연임을 지지했다.

김 총장은 앞서 ▲각 부서에서 권한과 자율성 부여 ▲민주적인 학사 운영 ▲합리적인 인사 관리 ▲교직원 복지향상 ▲우수교원 유치 ▲실력 있는 학생 유치 ▲교육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등 청사진을 발표하고 총장 연임에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교수들은 이번 의견조사에서 지난 4년 임기 동안 김 총장이 보여준 뛰어난 위기관리와 탁월한 비전 제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2.4% 지지 힘받아 향후 발전전략 탄력

김 총장은 2003년 교육부로부터 일반대학으로 전환인가를 받으면서 입학정원을 3천 300여명에서 2천500명으로 줄인 데 이어 2004년 다시 1천490명으로 감축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중앙도서관과 제2기숙사를 신축하는 등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우수 교수 확보에 나서 교수확보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광주대의 교수확보율은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에서 최상위 수준이다.

김 총장은 또 학생 취업을 제고를 위해 대학의 슬로건을 '취업·창업 중심대학'으로 바꾸고 전국 대학 최초로 '산업체 인턴취업 지원제'와 '창업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 결과 교육부가 발표한 취업률 조사에

서 2004년과 2005년 2년 연속 호남지역의 졸업생 2천명 이상 대학 중 취업률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이외 일본이나 중국 대학과의 교류 협력도 강화했다. 중국통상학과, 외국어학부 중국어 전공·일본어전공을 비롯한 관련 학과는 현재 자체결연 대학과의 공동학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을 일본이나 중국으로 파견하고 있다.

김 총장의 연임으로 비상의 구심점을 확보한 광주대는 최근 학교설립 후 처음으로 발전기금 조성에 나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모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광주대는 지난 1997년 발전기금을 조성하려다 IMF위기가 타자 지역민에게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중단했었다.

이번 발전기금 조성에는 교수 250명, 교직원 90명 등 교직원 340여명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기꺼이 냈으며, 지역기업이나 지역민, 동문 등 300여명도 동참해 총 32억원을 모금했다. 광주대는 2007년



30억원, 2010년 50억원, 2030년 100억원의 발전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훨씬 짧은 기간에 더 많은 기금을 적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장은 "연임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대학 구성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학 발전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며 "현재 가장 중점 '중장기비전수립위원회'의 중·단기 발전 전략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접목되는 2008학년도부터 대학의 위상을 한 단계 비약시키는 시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국학 칼럼

젊은이들이여, 세계를 향해 뛰어라



이승현

필자는 며칠 전 러시아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한국의 홍익정신을 가슴에 품고 러시아 개척길에 나선 한 청년 지도자로부터 온 편지였다.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한 이 청년은 러시아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매우 춥고 낮은 곳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자신을 포근하게 감싸는 듯한 느낌을 가슴으로 받았다. 러시아에 한국의 정신문화인 단학을 전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빼곡히 적어 보내왔다. 어찌 러시아가 낯설고 춥지 않았겠는가? 홍익의 용지를 품은 청년의 뜨거운 가슴이 낯설고 추위를 녹여버렸을 것이다.

필자의 20대는 삶의 실체에 대한 의문과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 지극히 방황했던 시간이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깨달음을 얻고 싶었고, 그 방황의 끝에서 '천지개운 천지마음'이 실제임을 깨달았고, '홍익인간이해 세계'의 정신을 만나 26년을 줄곧 하나의 비전으로 살아왔다. 많은 젊은이의 가슴속에도 필자의 경험과 같은 방황과 순수한 열정과 희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필자는 누구보다도 젊은이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한국에 오면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젊은 대학생 모임이 초청하는 강연에는 꼭 나가고, 대학생들과 대화모임에 참여한다.

기성세대들은 젊은이들이 개인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지만 직접 어울려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 개인으로서의 삶과 권리를 철저히 누리기를 원하지만 기성세대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이며, 열린 마음으로 언대한다. 건물거머비 힘잡리듬에 몸을 맡기다가도 사물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단군수 훼손을 반대하는 운동을 할 때도, 중국의 동북공정에 반대해 고구려지킴이 활동을 할 때

도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사람들이 젊은 네티즌들이었다. 한국의 청년들은 통합과 융합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분단체제에서 성장했지만 통일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세대이며, 동양과 서양,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 등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문화를 좋아하고, 그런 문화를 창조하는 세대이다. 필자는 젊은이들이 전통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소화해 세계보편의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역량을 가진 세대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라는 것이요, 둘째는 홍익의 비전을 품고 세계로 나가자는 것이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상의 온갖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정보의 주인으로 살아가자. 남의 생각, 남이 제시한 답을 따라서 살지 말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선택하여,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못지않게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정을 가지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 자신과 세계를 보는 깊은 주체적인 눈이 생긴다.

필자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민족의 철학에 바탕한 '홍익'의 비전을 품고 세계로 나가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 삶의 무대는 한국인이 아니다. 세계가 우리 삶의 터전이다. 익숙한 환경과 일상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를 향한 용기를 품기 바란다. 독립적인 영혼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홍익철학을 뿌리로 가진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지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지구인으로서, 사랑을 달라고 하지 말고, 평화를 구걸하지 말고, 사랑과 평화를 창조하며 살아가자. 창조하는 영혼은 아름답고 위대하다.

(국립보교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국학인 설립자)

취임 1년 이현청 호남대총장

“실무형 인재 양성...해외취업 늘릴 것”

호남대 이현청 총장(사진)이 23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그는 취임 직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8년간 역임하면서 대학의 개혁을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그가 총장으로 부임한 호남대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나나 다를까 이 총장은 기업주처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3+1'체제를 도입, 올해부터 실행에 옮기고 있다. 3학년까지는 기존처럼 대학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4학년 과정은 국내 산업체나 해외인턴십, 재택학습 등 캠퍼스 밖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만나 대학운영 구상을 들어봤다.



등 대기업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중에는 삼성전자로 역 스카우트된 사람도 있다. 현재 인턴십 교환학생 자격으로 일본과 중국에 각각 80여명 등 모두 160여명이 해외에서 취업을 준비 중이다. '공자 아카데미'를 유치한 것도 중국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총장은 "취업·창업 중심대학"으로 바꾸고 전국 대학 최초로 '산업체 인턴취업 지원제'와 '창업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 결과 교육부가 발표한 취업률 조사에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다른 대학들과 차별화를 고민하다가 지역 특성을 감안해 '교육중심대학'을 택했다. 대학의 글로벌화는 이를 위한 생존전략인 셈이다. 오는 6월 중순 중국 상하이에서 전체 교수 270여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상 취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학생 취업지원 방향을 우선 외국으로 돌릴 방침이다.

해의 취업이 국내 취업보다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 데, ▲IT(에니메이션·그래픽디자인 등 문화콘텐츠를 정보 기술에 접목한 분야)쪽에서는 확실히 다른 대학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자신한다. 올해도 졸업생 40여명이 해외로 진출했다. 현재까지 200여명이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미쓰비시

연말까지 60개로 늘릴 예정이다. 2년은 국내에서 나머지 2년은 해외에서 마치는 '2+2'과정, '3+1'과정, 또 국내에서 4년을 마치고 6개월을 해외에서 심화학습하는 '4+0.5'과정도 운영 중이다.

이 총장은 "취업·창업 중심대학"으로 바꾸고 전국 대학 최초로 '산업체 인턴취업 지원제'와 '창업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 결과 교육부가 발표한 취업률 조사에

서강학원 창학 30주년 '취업 1등대학' 잔결음

서강학원(학원장 김상우)이 창학 30주년을 맞아 제 2차학을 선포하고 '21세기 지식·문화사회를 선도하는 한국 최고의 명문 사학'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산하에 서강유치원·서강중·서강고·서강정보대학을 둔 서강학원은 지난 23일 서강정보대학관에서 창학 30주년 기념식과 제 2차학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인성 중심의 인의교육 ▲실사구시의 실용교육 ▲세계를 열어가는 글로벌 교육의 요량으로 발전하기 위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강정보대의 경우 '취업 1등대학'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현장맞춤형 특색과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교육의 질적 고도화로 '한국 최고 수준의 현장직업형 실용교육 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서강중·고등학교는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최우선 강하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호남지역 명문 중·고등학교의 전통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서강학원은 특히 지역사회와 상생·봉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발전과 평생교육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강학원은 지난 30년 동안 중학교 9천989명, 고등학교 1만4천545명, 대학 3만9천935명 등 총 6만4천46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Woom Therapy' (웃음치료사) featuring a testimonial from Jo Jungmun (조정문)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orea Association of Woom Therapy.

Advertisement for 'BUCKISH' (벅시) English learning center, highlighting its 'Total Care' approach and contact details for its branches in Gwangju.

Large advertisement for 'Woom English Camp' (웃음영어 캠프/연수) featuring colorful graphics, course details for English Camp and English Study, and contact information for Wawcamp.